

[AH-03] 정두원의 서양문물 전래와 한국사 최초의 망원경

안상현

한국천문연구원 국제천체물리센터

1361년 정두원은 산둥반도의 덩저우에서 포르투갈 출신 예수회 선교사인 Rodrigues를 만나 유럽인 신부들이 중국어로 쓴 네 권의 책과 세계지도와 천문도, 화약, 자명종, 부싯돌식 조총과 화약통, 자명종, 천리경, 해시계 등과 함께 『西洋貢獻神威大統疏』를 가져왔다. 본 발표에서는 이들 각각을 과학기술사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 그것이 당시 조선 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밝혀 본다. 특히, 정두원이 가져온 한역서양서 네 권과 『西洋貢獻神威大統疏』라는 문건은 궁중에 은밀하게 보관되어 왔다. 본 발표에서는 정두원의 보고서 원문에 해당하는 『西洋國奇別狀啓』를 간단히 소개하고, 새로이 밝혀진 『西洋貢獻神威大統疏』의 정체와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며, 또한 나머지 문헌들의 소장 경로를 추적한다. 이번에 새로이 밝혀진 또 다른 사실은 정두원은 홍이포를 가져오지 않았으며, 단지 부싯돌로 점화하는 신식 조총을 하나 받아들였음을 논증한다. 또한 총포에 관한 일반적인 역사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사적인 의미를 따져보고, 이때 들어온 자명종과 천리경의 비교과학사의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정두원이 가져온 혁신적인 국방 기술이 왜 조선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는지를 합리적으로 이해해 본다.

[AH-04] 세종 석각 천문도에 관한 재고

이기원

한국천문연구원 고천문연구그룹

세종 15년(1433)에는 고금의 천문도를 참작하여 새 천문도를 돌에 새겼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세종 때 만들어진 천문도로 알려진 별도의 유물은 현존하지 않는다. 반면 세종 이전인 태조 4년(1395)에 전천성도를 석각한 천상열차분야지도와 그 이후인 숙종 때 이를 복각한 천문도가 현재 남아 있는데 각각 국보 제228호와 보물 제837로 지정되어 현재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에 소장되어 있다. 따라서 세종 때 돌에 새긴 천문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 되어왔다. 특히, 태조본은 돌의 양면에 천문도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두 면 중 어느 한 면이 세종 때의 천문도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고 문헌 기록들을 바탕으로 세종본 천문도에 관한 기록을 재검토 하였다. 결과 세종 15년에는 천문도를 석각한 것 이라기보다는 천문(天文)이라는 책[書]을 석본(石本)으로 간행[刊]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므로 태조본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두 면 중 어느 한 면이 세종본일 것이라는 주장들은 다시 한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세종본 천문도에 대한 연구는 당시 에 간행한 천문이라는 책의 석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